



생활 속 위험별 보험상품 및 주의사항(1)

글 장태호 KPFA 계몽홍보팀 대리

우리는 일생동안 수많은 위험을 만나고 그 위험을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다만, 어떤 위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버스나 승용차를 탈 때에는 자동차사고 관련 위험,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에는 화재위험, 공장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산업재해 위험, 계약을 할 때에는 책임위험, 스키를 탈 때에는 부상위험, 예측보다 오래 살게 되었을 경우에는 장수위험 등 셀 수 없을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에 따른 보험상품이 부지기수여서 대부분 특정 위험을 어떤 보험상품으로 담보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 해당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호에는 위험을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 설명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를 구분하면 인적손해(Personnel loss), 재산손해(Property loss), 배상책임손해(Liability loss), 수익상실손해(Net income loss), 비용손해(Expense)로 나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가입한 대상이 어떠한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도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가장 흔하게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시에 내 자동차, 상대방의 자동차, 내 신체상해 및 상대방의 신체상해를 보상하며,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지불하게 될 각종 비용을 보상한다. 즉, 자동차보험은 앞에서 언급한 인적손해, 재산손해, 배상책임손해, 수익상실손해를 모두 지급하며 운전자보험은 주로 비용손해를 담보한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책임보험만 가입하는 형태를 제외하면)의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종합보험이며 상기 언급된 손해를 모두 보상하는 종합보험의 한 형태이다.

자동차보험과 같은 몇몇 종합보험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보험의 목적에 인적손해, 재산손해, 배상책임손해, 수익상실손해 중 하나를 담보하는 형태이거나 주로 담보하는 손해에 다른 손해를 특별약관의 형태로 추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보험 가입 시에 해당 보험상품이 어떤 위험을 담보하는지와 그 위험이 보장하는 또는 보장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손해(인적손해, 재산손해, 배상책임손해, 수익상실손해)에 대해서 보험상품 및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생명보험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일반적인 생명보험으로는 정기보험(한정된 기간동안 사망에 대한 보장), 종신보험(평생 동안 사망에 대한 보장), 양로보험(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저축성 포함)이 있으며, 투자형 생명보험으로는 유니버설(보험료 납입이 자유롭고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비과세효과), 변액(최저의 사망보험금이 보증되며 투자성가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음), 변액유니버설보험(변액과 유니버설의 혼합)이 있다. 기타생명보험은 가족보험,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이 있다.

상해보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이다.

의료실비보험

일반적으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발생한 제반비용을 보장하며 국민의료보험으로는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의료비를 보상한다. 태아/어린이보험, 실비보험 등이 있다.

연금보험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해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생명보험으로 일반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이 있다.

1. 인적손해(Personnel loss)

인적손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망과 부상위험, 장수위험(Longevity Risk)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직원의 퇴직 및 사임에 따른 손해, 질병, 후유장애, 치료 등이 있다. 이에 따른 보험상품은 다음과 같다.

전통적인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의 의미는 생명보험은 사망만을 담보하고, 상해보험은 부상만을 담보하는 의미였으나 현재에는 의료실비보험 및 통합보험과 같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입하려는 보험상품의 약관을 주의깊게 확인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설계하여야 한다. ☞

(총 2회 연재, 다음호에 계속)